

보도일시 (인터넷) 2024. 7. 23.(화) 06:00, (지면) 2024. 7. 23.(화) 석간 배포 2024. 7. 22.(월) 14:00

국민들에게 낯선 해양수산의 이모저모, 누리소통망에서 친근하게 만난다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제주 해녀와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일일 요리사로 변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체험형 정책 현장 소개’, ‘해양수산분야 청년 다큐’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과 소통 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강도형 장관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유튜브(www.youtube.com/@해양수산부)

그간 해양수산부는 수로측량,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와 같이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를 정책 현장 체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새우양식장, 수산물 유통업 등 해양수산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영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방송인 남창희가 최초 등대지기 사무관, 7급 공채 신입 등 직원들에게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대접하며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海水토랑’이라는 콘텐츠를 정규 편성하였다.

* 바다를 뜻하는 海水와 음식점을 뜻하는 restaurant의 합성어

이번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강 장관은 해수토랑의 일일 요리사로 변신하여, 해녀가 되기 위해 제주도로 귀어한 청년 해녀와 국가중요어업유산 담당 직원을 만난다. 강 장관은 어린 시절 자주 먹었던 과래밥과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해물라면을 대접하며 제주도에서 살아온 이야기와 기후변화, 어촌활력제고 등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책의 시작과 끝은 모두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매주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색있는 해양수산 현장의 모습을 온라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책임자	팀 장	신동호 (044-200-6053)
		담당자	사무관	여제구 (044-200-5024)

참고

콘텐츠 주요 장면 소개

□ 해양수산부 누리소통망(유튜브) 콘텐츠 주요 장면



□ 강도형 장관 현장 방문 콘텐츠



□ 강도형 장관 소통 콘텐츠

